

[제2024-02차] 머니투데이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: 2024년 12월 30일(월) 오후 2시
2. 장소: 머니투데이방송 4층 대회의실
3. 참석위원: 박호진(위원장), 서성완(부위원장), 이호섭, 구강모, 조은아, 김윤정, 임수신 (총 7명 전원 참석)
4. 회의 안건:
 - 안건 1: 출연 전문가의 경력 및 전문성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의 건
 - 안건 2: 부적격 출연자 퇴출 기준(삼진아웃제 등)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의 건

[회의 내용]

○ 박호진 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최근 증권 방송에 출연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자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보도와 제작을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, 방송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출연자 문제를 엄중히 다루고자 합니다.

■ 안건 1: 출연 전문가의 전문성 및 자질 사전 검증 강화

○ 조은아 위원: 보도 공정성 점검 결과, 일부 출연 전문가가 제시하는 투자 정보의 근거가 빈약하거나 과거 이력이 불투명하다는 시청자 제보가 있었습니다.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, 출연자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자질에 대한 철저한 팩트체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
○ 김윤정 위원: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 게시판을 모니터링해 보면, 특정 출연자의 과거 유료 리딩방 운영 전력이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.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조회와 실무 경력 증명서 확인 등 다각적인 사전 검증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○ 임수신 위원: 방송 콘텐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, 출연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하도록 제작진이 통제해야 합니다. 자질이 의심되는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인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.

■ 안건 2: 제작 가이드라인 수정 및 사후 관리 방안

○ 구강모 위원: 프로그램 심의 과정에서 보면, 일부 어드바이저들이 방송 중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확증 편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제작진은 출연 전 교육을 강화하고, 방송 규정을 위반하는 출연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교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를 가져야 합니다.

○ 서성완 부위원장: 제작 부문 총괄로서 말씀드리면,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섭외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.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한 '출연자 자격 심사 위원회' 설치를 검토하고, 문제

발생 시 영구 퇴출하는 등 강력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.

○ 이호섭 위원: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 출연자의 경력사항을 화면 하단에 명확히 고지하여 시청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고, 정기적인 출연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.

○ 박호진 위원장: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연자 검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하겠습니다. 시청자의 소중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,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.

5. 결정 사항 및 향후 계획

- 안건 1 관련: 출연 전 경력 증명 및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, 내부 '출연자 검증 소위원회'를 통해 최종 승인된 인원만 출연 시킬 것.
- 안건 2 관련: 방송 사고나 품위 손상, 불확실한 정보 전달 시 즉시 출연을 정지시키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를 도입하고 사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기 작성할 것.
- 기타: 본 회의록은 운영 규정 제7조 4항에 따라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에 공개함.

6. 폐회: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. (오후 3시 43분)